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적 특성

유현정 · 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ts Shown in Prêt-à-porter Collection

Hyun Jeong Yoo · Jeong Mee Ki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6. 11. 12 접수; 2016. 12. 15 수정; 2016. 12. 18 채택)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hat, and also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ts shown in Prêt-à-porter Collection.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 relevant technical books and preceding researches while the case study targeted 1,561 photos of hats shown in the 'Donga TV Collection'. The research range was from the S/S season of 2012 to the F/W season of 2015/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hat is composed of crown and brim. In the results of classifying hats based on it, there were 572 crown-type hats, 533 hat-type, 219 cap-type, 156 irregular-type, and 81 brim-type in the order. 2. For the crown-type hats, they were mainly like cylindrical-type, bell-type, dome-type, and circle-type, using colors like black, beige, brown, red, mustard, and grey, and materials like wool, fur, velvet, straw, and metal while they were decorated with bead or lace. 3. For the hat-type hats, they were mainly like bell-type, ladder-type, and hemisphere-type, using colors like peach, white, gold, brown, and khaki, and materials like silk, cotton, straw, and wool while they were decorated with feather and ribbon. 4. For the cap-type hats, they were mainly like hemisphere-type, using colors like white, black, khaki, mustard, and purple, and materials like fur, leather, and wool while they were decorated with wappen and chain. 5. For the irregular-type hats, they were mainly like sandglass-type, box-type, animal-type, trumpet-type, and bell-type, using colors like purple, orange, pink, yellow, and sky-blue, and materials like metal, feather, mesh, plastic, straw, and linen while they were decorated with ribbon, net, bell, and flower. 6. For the brim-type visor, they were mainly like square-type, using colors like transparent, yellow, and black, and materials like plastic, cotton, leather, and metal.

Key Words: Brim(브림), Cap(캡), Crown(크라운), Hat(햇)

I. 서론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패션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는 손쉽게 색다른 패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개성을 표출하기 용이한 패션아이템이다(손은영, 2014). 2012년 상반기 모자는 전년 대비 판매량에 20~30% 가량 증가하였다(김익길, 2012). 비니는 캐주얼 룩이나 빈티지 룩에도 잘 어울리며, 굵은 털실로 짜여진 털모자는 경쾌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고, 펠트 소재의 페도라는 클래식한 패션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방한만을 위한 아이템으로 여겨지던 퍼(fur) 모자 또한 최근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유연수, 2014).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모자들은 최근 패션 컬렉션에서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2016년 샤넬(Chanel)은 클래식한 수트에 야구 모자를, 구찌(Gucci)는 베레모를, 그리고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는 병거지 모자를 매치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을 완성시켰다(김위수, 2015).

한편 모자에 관한 논문으로는 모자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양지나, 이상은; 2007)와 모자의 조형성 및 미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구인숙, 2001; 김은실, 배수정, 2003; 유현정, 김민자, 2006; 정해진, 정수진; 2008; 서동애, 2012; 박월미, 김은실, 배수정, 2013; 최진영, 김지영, 2016)와 모자 형태에 따른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정해선, 강경자, 2004; 정수진 외, 2005), 그리고 의복과 모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은실, 2009; 김은실,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모자는 과거 신분을 상징하던 수단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컬렉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착용자의 인상을 형성하고 의복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오트쿠튀르 컬렉션(Haute Couture Collection)이나 스테판 존스(Stephen Jones, 1957~)와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 1967~)와 같은 특정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독창성과 예술성이 강조된

모자만을 다루고 있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중적인 모자 디자인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에 나타나는 모자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모자의 유행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모자 상품 기획 시 디자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연구는 모자의 종류 및 형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모자 관련 전문 서적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는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양 TV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 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패션 모자의 판매가 급격히 상승한 2012년 S/S 시즌부터 2015/16년 F/W 시즌까지로 한다.

II. 일반적 고찰

1. 모자의 개념 및 기능

모자(hat)란 머리에 쓰도록 만든 쓰개로, 예의를 갖추거나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이다(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자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고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모자는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용도로 착용하였고(Cox, B. et al., 2013; 김민자 외, 2010), 근세부터 19세기까지 모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려한 치장의 목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매너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착용하였다. 20세기 이후에 모자는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적인 목적과 함께 착용자의 개성을 완성시켜주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착용되고 있다(김은실 외, 2006).

2. 모자의 구성

모자는 머리를 덮는 부분인 크라운(crown)과

〈표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본 모자의 종류

구분	선행연구	연구자	유형	종류
구성방법 및 외관형태		유현정·김민자(2006)	입체형	필 박스, 토크, 코삭, 페즈, 헬멧, 클로쉐, 픽처 햇, 카플린, 카노티에, 카트 휠, 머쉬룸, 슬라우치, 쿨리, 티놀리안, 파나마, 보우터, 자키, 브르통, 카우보이
			평면형	만다린, 보닛, 후드, 병거지, 템, 스카프, 머릿수건
			혼합형	터번, 베레, 스컬 캡, 야구 모자
			자유형	크라उन과 브림이라는 기본모 형태가 과도하게 변형된 것
브림의 유무	정해선·정수진(2008)	브림이 없는 형	터번, 시농 캡, 토크, 필 박스	
			브림이 있는 형	보닛, 브르통, 케플린, 클로시, 보터
		Free	모자의 형태를 실험적으로 크게 변형한 독창적 모자	
		Mixed	모자유형의 기본형에서 변형되어 구분되기 곤란한 형태의 모자	
	서동애(2012)	크라उन형	토크, 베레, 터번	
		브림형	바이저	
		크라उन+브림	캡, 플로피, 보올러, 카멧, 버킷, 하이 햇, 카우보이	
	박월미 외(2013)	브림이 있는 형	브림이 있는 형	보닛, 브르통, 클로슈
브림이 없는 형			베레, 필 박스, 토크, 헤드피스	

크라उन 둘레를 따라 둘러진 면인 브림(brim)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라운은 머리의 중심이며 모자의 맨 윗부분에 해당하며 브림은 크라운 아래에 형성하며 모자의 바깥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Lau, J., 2014). 그리고 크라운의 윗 부분은 탑 크라운(top crown), 측면 부분은 사이드 크라운(side crown), 브림의 둘레선은 엷징(edging), 브림의 안쪽면은 페이스(facing)이라 한다(김은실 외, 2006). 브림이 머리 부분 주위를 따라 달려있는 모자는 햇이라하고, 브림이 앞쪽에만 달려 있는 것을 캡(cap)이라 한다(서동애, 2012).

모자는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춘하용 모자는 밀짚과 같은 가벼운 직물로 만들고, 추동용 모자는 가죽·스웨이드·펠트·파일지 등 무거운 직물로 만든다(Stall-Meadows, C., 2008).

3. 모자의 종류

모자는 구성 방법 및 외관 형태, 브림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유현정·김민자(2006)는 모자를 구성방법과 외

관의 형태에 따라 입체형·혼합형·평면형·자유형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입체형이란 모자의 외관 형태가 착용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필 박스(pill box)·토크(toque)·코삭(cossack)·페즈(fez)·헬멧(helmet)·클로쉐(cloche)·픽처 햇(picture hat)·카플린(capeline)·카노티에(canotier)·카트 휠(cart wheel)·머쉬룸(mushroom)·슬라우치(slouch)·쿨리(coolie)·티놀리안(tyrolean)·파나마(panama)·보우터(boater)·자키(jockey)·브르통(breton)·카우보이(cowboy)가 있다. 평면형은 착용하지 않을 때는 유연한 형태를 이루다가 착용 시에는 원 상태로 복원되는 모자로, 만다린(mandarin)·보닛(bonnet)·후드(hood)·병거지·템(tam)·스카프(scarf)·머릿수건이 있다. 혼합형이란 크라운과 브림의 일부분이 입체형이나 평면형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터번(turban)·베레(beret)·스컬 캡(skull cap), 야구 모자가 있다. 자유형은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기본 형태에서 과도하게 변형된 것으로, 조형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형태, 소재, 장식 등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모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모자는 브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해선·정수진(2008)은 브림이 없는 유형

에는 터번·시농캡·토크·필 박스, 브림이 있는 형에는 보닛·브르통·케플린·클로시·보터가 있으며, Free형에는 모자의 형태를 실험적으로 크게 변형한 독창적인 형태의 모자가 있으며, Mixed형에는 모자 유형의 기본형에서 변형되어 구분되기 곤란한 형태의 모자가 있다고 하였다. 서동애(2012)는 크라운만 있는 형태로는 토크·베레·터번, 브림만 있는 형태에는 바이저(visor), 크라운과 브림이 있는 형태는 캡·플로피(floppy)·보울러(bowler)·카뎃(cadet)·버킷(bucket)·하이 햇·카우보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월미 외(2013)는 브림이 있는 형에는 보닛, 브르통, 클로슈, 브림이 없는 형에는 베레, 필 박스, 토크, 헤드피스(headpiece)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모자는 구성 방법 및 외관형태, 브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모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구성과 외관형태, 브림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모자를 브림형, 크라운형, 크라운과 브림으로 이루어진 햇형과 캡형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1) 브림형(brim-type)

브림형은 브림으로만 이루어진 모자로 바이저가 있다. 바이저란 이마와 눈을 가려주는 앞부분이 있는 캡이나 스포츠용으로 브림과 헤어밴드로 된 모자를 말하며(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선 실드(sun shield)라고도 한다. <그림 1>은 헤어밴드와 브림으로만 구성된 바이저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2) 크라운형(crown-type)

크라운형은 크라운으로만 구성된 모자로, 필 박스·토크·시농 캡(chignon cap)·페즈·헬멧·스컬 캡·후드·터번·보닛·베레·비긴(biggin)·니트 캡(knit cap)이 있다(김은실 외, 2006; Stall-Meadows, C., 2008; Lau, J., 2014).

필 박스는 1920년대 말에 소개된 둥근 원통형에 위가 편평한 클래식한 모자로, 약상자 모양과 비슷하다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그림 2>는 1995년 베르사체

(Versace) 수트와 함께 필 박스를 매치한 다이애나 비(Diana Frances Spencer)의 모습으로, 모자는 머리에 꼭 맞는 원통형에 연분홍색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에는 리본 장식이 되어있다. 토크는 브림이 없으며 머리에 꼭 맞게 쓰는 모자로, 크라운은 원통형이며 모자가 머리에 편안하게 맞도록 앞부분이 편평한 것이 특징이다(비주얼사전). <그림 3>은 1955년경 제작된 올리브 그린 색상의 토크로, 크라운이 아래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에 스트로우 소재로 되어 있으며 쉬폰 소재로 둘러져 있다. 시농 캡은 뒤로 모아 틀어 올린 머리 모양 위에 씌우는 작은 모자를 말하는데, 주로 웨딩드레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림 4>는 1960년경 제작된 시농 캡으로, 머리 윗부분에 얽는 원통형에 실크 소재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베일과 깃털로 장식되어 있다. 페즈는 터키인이나 중동지역 사람들이 애용하는 모자로(조규화 외, 1995), <그림 5>와 같이 페즈는 붉은색에 양동이를 얹어놓은 듯한 원통형에 검정색 속 장식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헬멧은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투구형의 모자로, 직물·알루미늄·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며 패션 소품으로도 이용되고 있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림 6>은 1938년 레이싱 선수인 케이 페트레(Kay Patre)의 경기 중 모습으로, 레이싱 중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컬 캡은 머리에 꼭 맞는 크라운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모자로 주로 노인용 실내모자로 사용된다(조규화 외, 1995). <그림 7>은 1949년 디자이너 폴린 트리기어(Pauline Trigere)의 코트를 착용한 여인의 모습으로, 머리에 꼭 맞는 스컬 캡을 매치하고 있다. 후드는 머리 전체를 덮는 형태의 모자로 주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으며 코트나 재킷에 달린 후드를 비롯하여 스포츠용으로 나오고 있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림 8>은 1939년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10-11월호에 나타난 레인코트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으로, 후드는 레인코트에 달려 있으며 머리와 목 뒷부분을 완전히 덮는 형태로 되어 있다. 터번은 중동이나 인도에서 긴 천을 머리에 둘러매어 쓰는 형태의 모자로, 더위나 바람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다. 1930년대에는 서양

여성 패션에 적용되었으며, 1970년대에 유행하였다(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그림 9>는 붉은색 실크로 된 터번으로 주름이 많이 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닛은 부드러운 크라운으로 뒤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싸는 듯 가리고 턱 밑에서 끈으로 묶는 모자이다(조규화 외, 1995). <그림 10>은 1880년경 제작된 보닛으로, 머리 뒷부분과 양뺨을 가리는 형태에, 레이스 소재로 되어 있으며 턱 밑에는 리본으로 매듭짓는 형태이다. 베레는 크라운이 둥글고 납작하며 때로는 부풀어 있는 모자로, 간결한 단으로 테두리 된 부분이나 좁게 만들어진 머리띠 부분을 이용하여 머리에 맞게 쓰는 모자이다(비주얼사전). <그림 11>은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and Clyde)’의 여자 주인공 페이 다나웨이(Faye Dunaway)의 모습으로, 그녀는 부드러운 소재로 된 베레를 비스듬하게 착용하고 있다. 비킨은 어린 아이나 여학생들이 쓰는 머리에 꼭 맞는 모자로, <그림 12>와 같이 두건과 같은 형으로 머리 전체를 꼭 끼게 쓰며 턱 아래에 같은 천으로 맨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리고 니트 캡은 비니(beanie)로도 불리며, 머리에 달라붙게 뒤집어쓰는 모자이다(비주얼사전). <그림 13>은 1969년 비바 카탈로그(Biba catalogue)에 촬영된 모델의 모습으로, 부드러운 소재에 머리에 꼭 맞는 형태의 비니를 착용하고 있다.

3) 햇형(hat-type)

햇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이루어졌으며, 브림이 모자 전체를 두르는 형태이다. 종류로는 클로슈·브리머(brimner)·세일러 햇(sailor hat)·더비 햇(derby hat)·톱 햇(top hat)·머시룸 햇·브레톤·보터·페도라(fedora) 등이 있다(김은실 외, 2006; Stall-Meadows, C., 2008; Lau, J., 2014).

클로슈는 1920년대에 유행하였던 크라운이 깊고 브림이 아주 좁은 종 모양의 여성용 모자로, 머리에 꼭 맞고 짧은 머리를 거의 감추어주고 눈썹을 덮을 정도로 눌러쓰는 것이 특징이다(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그림 14>는 1920년대에 클로슈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여성이 착용한 클로슈는 머리에 꼭 맞는 형태에 브림이 좁고 앞부분은 위로 젖혀져 있으며, 깃털로 장식되어

있다. 브리머는 챙이 넓은 모자의 총칭으로 캐플린, 카트힐 등 폭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포함한다(조규화 외, 1995). <그림 15>는 모자 디자이너 장 바르테(Jean Barthe)의 브리머를 착용한 영화배우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의 모습이다. 그녀가 착용한 브리머는 스트로우 소재로 되어 있으며, 브림이 넓게 퍼지며 체크무늬 천으로 띠가 둘러져 있다. 세일러 햇은 <그림 16>과 같이 평평한 크라운과 단단하고 수평의 브림을 가진 모자로, 챙이 위로 젖혀진 작은 크라운의 것이나 각테일용의 작은 모자를 말하기도 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더비 햇은 주로 남성이 쓰던 중산모로 크라운이 높고 둥글며 브림이 좁고 위로 말린 것이 특징이다(비주얼사전). <그림 17>은 노르마 카말리(Norma Kamali)의 1981년 ‘스웨트(Sweats)’ 컬렉션 사진이다. 사진에서 모자는 톱 크라운이 둥글고, 브림이 위로 말린 형태에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으며 리본 밴드를 두른 형태이다. 톱 햇은 크라운이 높은 원통형이며 리본이 둘러져 있고, 양 옆에서 들려 오른 챙이 있는 실크 소재의 뽀뽀한 모자이다(비주얼사전). <그림 18>은 1930년 톱 햇을 착용하고 있는 영화배우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의 모습이다. 그녀가 착용한 톱 햇은 원통형의 크라운에 브림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으며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머시룸 햇은 챙이 아래로 처진 모자의 총칭으로, 버섯을 연상시키는 형태이다(조규화 외, 1995). <그림 19>는 갈색 머시룸 햇을 착용한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의 모습으로, 모자는 둥근 원통형 크라운에 브림이 아래로 처져 있어 버섯 모양을 연상시킨다. 브레톤은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역의 농민이 썼던 모자에서 유래한 둥근 크라운과 접혀진 브림이 있는 여성용 모자로 머리 뒤쪽으로 쓰며 얼굴을 드러낸다(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그림 20>은 에드워드 디안 시대 때 제작된 브레톤으로, 낮고 평평한 원통형의 크라운에 브림은 윗 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 보터는 원래 ‘보트에 탄 사람’이라는 뜻인데, 19세기 말 영국에서 생긴 선원들의 모자로 평평한 크라운과 단단한 수평의 브림으로 된 보리짚 모자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림 21>은 1940년경 제작된 보터로, 낮고 평평한 크라운에 수평의 브림으로 되어 있으며, 스트

로우 소재로 되어 있다. 페도라는 중절모의 일종으로, 크라운이 낮고 톱 중앙에 세로로 접은 금이 있는 펠트제 모자이다. <그림 22>는 페도라를 착용한 마를렌 디트리히의 모습으로 톱 크라운이 접혀 있으며 리본으로 크라운을 두르고 있다.

4) 캡형(cap-type)

캡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자 앞부분에만 브림이 있는 형태이다. 종류로는 카스켓(casquette)·디어스토커(deerstalker)·라이딩 캡(riding cap)·베이스볼 캡(baseball cap) 등이 있다(김은실 외, 2006; Stall-Meadows, C.,

2008; Lau, J., 2014).

카스켓은 부드러운 천으로 평평하게 만든 크라운에 학생모나 군모와 같은 앞 챙이 붙어 있는 헌팅풍의 모자이다. 수렵과 산책 때 사용되었으며, 스포티한 복장이거나 경쾌한 감각이 특징이다(조규화, 1995). <그림 23>은 카스켓을 착용한 독일 여군의 모습으로, 카스켓은 부드러운 소재의 크라운과 짧은 브림으로 되어 있다. 디어스토커는 양쪽에 이어 플랩(ear flap)이 붙은 컨트리풍의 모자로,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비주얼 사진). <그림 24>의 디어스토커를 살펴보면, 이어플랩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이딩 캡은 승마용 모자로, 검정 벨벳이나



<그림 1> 바이저
(출처: 패션전문자료사진)



<그림 2> 필 박스
(출처: Blackman, C. (2012). p.380.)



<그림 3> 토크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23.)



<그림 4> 시용 캡
(출처: 김은실 외 (2006). p.16.)



<그림 5> 페즈
(출처: 패션전문자료사진)



<그림 6> 벨벳
(출처: Blackman, C. (2012). p.88)



<그림 7> 스켈 캡
(출처: Blackman, C. (2012). p.207.)



<그림 8> 후드
(출처: Blackman, C. (2012). p.148)



<그림 9> 터번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6.)



<그림 10> 보닛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14.)



<그림 11> 베레
(출처: Hopkins, S. (1999). p.81.)



<그림 12> 비긴
(출처: 패션전문자료사진)



<그림 19> 머시플 햇
(출처: Mulvey, K. (1998). p.120.)



<그림 20> 브레몬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16.)



<그림 21> 보터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5.)



<그림 22> 페도라
(출처: '7 way to'. (2015. 08. 06))



<그림 23> 카스켓
(출처: Blackman, C. (2012). p.95.)



<그림 24> 디어스토커
(출처: 패션전문자료사진)



<그림 19> 머시플 햇
(출처: Mulvey, K. (1998). p.120.)



<그림 20> 브레몬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16.)



<그림 21> 보터
(출처: Reilly, M., & Detrich, M. (1997).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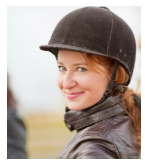
<그림 22> 페도라
(출처: '7 way to'. (2015. 08. 06))



<그림 23> 카스켓
(출처: Blackman, C. (2012). p.95.)



<그림 24> 디어스토커
(출처: 패션전문자료사진)



<그림 25> 라이딩 캡
(출처: 두산백과사전)



<그림 26> 베이스볼 캡
(출처: 김지영 (2016. 08. 19))

햇형	클로슈(cloc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아래로 향하는데, 그 모양이 종의 형태와 비슷한 모자 	
	브리머(brim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챙이 넓은 모자 	
	세일러 햇(sailor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평한 크라운과 전체적으로 브림이 위로 올라간 것, 브림이 단단하고 수평인 보리짚 모자 	
	더비 햇(derby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말에 등장한 주로 남성이 쓰는 모자, 뺏뺏한 펠트 소재이며 둥글린 원형 크라운에 좁고 위로 말린 챙이 있음 	
	톱 햇(top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운이 높은 원통형이며 리본이 둘러지고, 양 옆에서 들어올려진 챙이 있는 실크 소재의 뺏뺏한 모자 	
	머시룸 햇(mushroom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의 브림이 아래로 향하여 버섯처럼 생겼다해서 붙여진 이름 	
	브레톤(bre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대형으로 챙이 말아올려져 있는 모자 	
	보터(bo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평한 크라운과 단단한 수평 챙으로 된 보리짚 모자 	
	페도라(fed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리본으로 장식된 움푹 들어간 크라운이 있는 부드러운 모자 	
캡형	카스켓(casque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운에 앞브림이 달린 캡의 일종 	
	디어스토커(deerstal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뒤에 챙이 붙어있고 양쪽에 이어 플랩(ear flap)이 붙은 컨트리 풍의 모자 	
	라이딩 캡(riding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 벨벳이나 벽스킨으로 만들어진 앞브림이 붙은 승마용 모자 	
	베이스볼 캡(baseball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구모자, 머리에 꼭 맞게 쓴 반구형이나 약간 느슨한 크라운형으로 보통 여섯 조각으로 만들 	

〈표 2〉 유형별 모자의 종류 및 특징

유형	종류	특징	사진
브림형	바이저(vi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직사광선에서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앞 브림과 헤어밴드만으로 되어 있음 	
	필 박스(pill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가 평평하고 얇은 원형에 챙이 없는 모자 	
크라운형	토크(to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물이나 털로 만든 챙없는 모자, 크라운은 원통형이며 모자가 머리에 편안하게 맞도록 윗부분이 편평함 	
	시농 캡(chignon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틀어 올려 뒤쪽에 붙이는 형식의 작은 모자 	
	페즈(f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키 사람들이 애용하는 모자로, 양동이를 얹어놓은 듯한 브림이 없는 원통형이 특징 	
	헬멧(helm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의 일종 쇠나 알루미늄의 모자, 여성모자는 스피드 경기의 선수가 쓰는 헬멧과 우주 비행사의 헬멧 등에서 도입 	
	스컬 캡(skull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의 윗부분만 덮는 작고 둥근 모자 	
	후드(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에서 목, 어깨까지 뒤집어써서 얼굴만 노출시키는 형태의 모자 	
	터번(turb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아시아나 인도지방에서 많이 쓰는 모자 	
	보닛(bon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행했던 모자로 머리를 감싸듯이 가리고 얼굴과 이마만 드러냄 	
	베레(ber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는 둥글고 납작하며 브림이 없는 부드러운 모자 	
	비긴(bigg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 전체를 싸고 같은 천으로 턱 아래에서 묶는 디자인의 모자 	
	니트 캡(knit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니(beanie), 머리에 달라붙게 뒤집어쓰는 모자 	

박스킨으로 만들어진 앞브림이 붙은 둥근 모자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그림 25>는 검정 벨벳으로 된 라이딩 캡으로, 브림의 앞부분이 짧고 반구형의 크라운으로 되어 있다. 베이스볼 캡은 야구모로, 크라운은 반구형으로 보통 머리에 꼭 맞고 여섯 조각으로 구성되며, 브림은 크고 길다(조규화 외, 1995). <그림 26>의 베이스볼 캡을 살펴보면, 여섯 조각으로 이루어진 반구형의 크라운에 브림이 휘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상 유형별 모자의 종류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Ⅲ.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2년 S/S 시즌부터 2015/16년 F/W 시즌까지 「동아 TV 컬렉션」에서 모자를 착용한 사진 1,586점을 추출한 다음, 명확하지 않은 사진 25점을 제외한 1,561점을 대상으로 브림형, 크라운형, 햇형, 캡형, 비정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 브림형

브림형은 브림으로만 구성된 모자로, 총 81점

이 나타났다. 브림형에는 이마와 머리를 덮는 형태나 브림이 머리 뒷부분까지 둘러진 형태 그리고 브림이 이마를 수평으로 덮는 형태의 바이저가 있다. <그림 27>은 2013년 S/S 시즌 미소니(Missoni)에서 발표한 바이저로, 사각형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단순하고 간결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그림 28>은 2014/15년 F/W 시즌 모스키노(Moschino)에서 발표한 바이저로, 사각형의 앞브림에 색상은 비비드 톤의 옐로우와 블랙 도트로 소재는 코튼이 사용되어 젊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29>는 2012년 S/S 시즌 발렌시아가(Balenciaga)에서 발표한 블랙 색상의 바이저로, 브림은 레더 소재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부터 머리 뒷부분까지 원형으로 연결되어 뒤로 늘어진 형태에 브림을 과장하여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30>은 2012/13년 F/W 시즌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에서 나타난 바이저로, 브림은 사각형으로 얼굴을 평평하게 덮는 단순한 형태에 메탈릭 소재가 강조되어 신선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림형의 모자는 바이저로, 바이저는 크라운 없이 머리를 드러내는 형태에 브림은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 등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다. 색상은 투명·옐로우·블랙 등이며, 소재는 플라스틱·코튼·레더·메탈 등이 사용되어, 모던·액티브·아방가르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표 3> 유형별 모자의 수(2012년 S/S~2015/16년 F/W)

유형 \ 시즌	2012 S/S	2012/13 F/W	2013 S/S	2013/14 F/W	2014 S/S	2014/15 F/W	2015 S/S	2015/16 F/W	총 계
브림형	9	26	8	0	33	1	0	4	81
크라운형	121	57	78	124	26	97	32	37	572
햇형	98	195	94	27	22	30	52	15	533
캡형	55	46	23	31	19	18	3	24	219
비정형	13	34	24	0	63	9	11	2	156
총 계	296	358	227	182	163	155	98	82	1,561



<그림 27> 바이저 (1)
(출처: 2013 S/S Missoni Collection, Vol 25, p.221)



<그림 28> 바이저 (2)
(출처: 2014/15 F/W Moschino Collection, Vol 27, p.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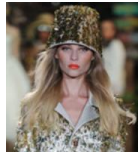
<그림 29> 바이저 (3)
(출처: 2012 S/S Balenciaga Collection, Vol 23, p.27)



<그림 30> 바이저 (4)
(출처: 2012/13 F/W Alexander McQueen Collection, Vol 24,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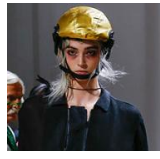
<그림 31> 필박스
(출처: 2013 S/S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 Vol 23, p.89)



<그림 32> 토크
(출처: 2014 S/S Dsquared2 n Collection, Vol 1, p.206)



<그림 33> 시농 캡
(출처: 2012 S/S Nina Ricci Collection, Vol 23, p.106)



<그림 34> 헬멧
(출처: 2015 S/S Yohji Yamamoto Collection, Vol 28, p.140)



<그림 35> 스켈 캡
(출처: 2013 S/S Giorgio Armani Collection, Vol 25, p.199)



<그림 36> 후드
(출처: 2015/16 F/W Fendi Collection, Vol 29, p.206)



<그림 37> 터번
(출처: 2015 S/S Missoni Collection, Vol 28, p.216)



<그림 38> 랄프 로렌
(출처: 2013 S/S Ralph Lauren Collection, Vol 25, p.321)



<그림 39> 비긴
(출처: 2012 S/S Alexander McQueen Collection, Vol 23, p.22)



<그림 40> 니트 캡
(출처: 2013/14 F/W Giles Collection, Vol 26, p.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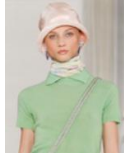
2. 크라운형

크라운형은 크라운으로만 구성된 모자로, 총 572점이 나타났다. 종류로는 토크 172점, 니트 캡 96점, 비긴 69점, 스켈 캡 59점, 후드 59점, 터번 37점, 시농 캡 32점, 베레 32점, 필 박스 13점, 헬멧 3점이다.

<그림 31>은 2013년 S/S 시즌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에서 발표한 필 박스로, 둥근 원통형에 머리에 꼭 맞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색상은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고 장식이 배제되어 간결하고 단순한 감각이 돋보인다. <그림 32>는 2014년 S/S 시즌 디스퀘어드2(Dsquared2)에서 발표한 토크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원통형에 색상은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고 소재는 울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표현한다. <그림 33>은 2012 S/S 시즌 니나 리치(Nina Ricci)에서 발표한 시농 캡으로, 구형에 흰색 레이스 소재로 되어 여성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34>는 2015년 S/S 시즌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에서 발표한 머스터드 색상의 헬멧으로, 반구형에 메탈 소재 위에 실키한 소재가 덧대어져 있으며 Y자 형의 턱 끈이 달려 있어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5>는 2013년 S/S 시즌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에서 발표한 스켈 캡으로, 형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실버 색상에 비즈 장식이 되어 있어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다. <그림 36>은 2013/14년 F/W 시즌 펜디(Fendi)에서 발표한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된 후드로, 촉감이 부드러운 울 소재에 머리와 목 뒤를 부드럽게 덮는 형태로 되어 있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7>은 2015년 S/S 시즌 미소니에서 발표한 터번으로, 코튼으로 된 천을 둘러 반구형을 이루며 터키 블루 색상을 사용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38>은 2013년 S/S 시즌 랄프 로렌(Ralph Lauren)에서 발표한 레드 색상의 베레로, 부드러운 펠트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감각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39>는 2012년 S/S 시즌 알렉산더 맥퀸에서 발표한 블랙 색상의 비긴으로 머리에 꼭 맞아 반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턱에 끈 장식이 있어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40>은 2014/15년 F/W 시즌 자일스(Giles)에서 발표한 퍼플 색상 니트 캡으로, 굵은 털실로 짠 원형은 젊고 경쾌한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크라운형의 모자는 필 박스·토크·시농 캡·헬멧·스켈 캡·후드·터번·베레·비긴·니트 캡이 있다. 주로 원통형·중형·반구형·원형을 이루며, 색상은 블랙·베이지·브라운·레드·머스터드·그레이 등이며, 소재는 울·퍼·벨벳·스트로우·메탈 등이 사용되었으며, 비즈 장식·끈 등이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모자는 모던·엘레강스·페미닌·액티브·에스닉·캐주얼 등 다양한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41> 클로슈
(출처: 2012 S/S Ralph Lauren Collection, Vol 23, p.312)



<그림 42> 브리머
(출처: 2012 S/S D&G Collection, Vol 23, p.160)



<그림 43> 세일러 햇
(출처: 2014/15 F/W Vivienne Westwood red label Collection, Vol 27, p.390)



<그림 44> 더비 햇
(출처: 2014/15 F/W Emporio Armani Collection, Vol 27, p.181)



<그림 45> 톱 햇
(출처: 2012/13 F/W Ralph Lauren Collection, Vol 24, p.320)



<그림 46> 머시룸 햇
(출처: 2012/13 F/W Ralph Lauren Collection, Vol 24, p.318)



<그림 47> 브레톤
(출처: 2012 S/S Christian Dior Collection, Vol 23, p.44)



<그림 48> 보터
(출처: 2012 S/S Erdem Collection, Vol 23, p.356)



<그림 49> 페도라
(출처: 2012 S/S Emilio Pucci Collection, Vol 23, p.175)

3. 햇형

햇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림이 모자 전체를 두르는 형태의 모자로, 총 533점이 나타났다. 종류로는 브리머 237점, 페도라 117점, 클로슈 61점, 브레톤 42점, 보터 48점, 머시룸 햇 11점, 더비 햇 8점, 톱 햇 8점, 세일러 햇 1점이다.

<그림 41>은 2012년 S/S 시즌 랄프 로렌에서 발표한 클로슈로, 형태는 크라운이 깊고 브림이 좁아 종 모양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색상은 베이지에 소재는 울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띠가 크라운 주위에 둘러져 있어 여성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42>는 2012년 S/S 시즌 디앤지(D&G)에서 출시한 브리머로 넓은 브림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한 베이지 색상에 스트로우 소재로 되어 있어 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43>은 2014/15 F/W 시즌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Vivienne Westwood Red Label) 컬렉션에서 발표한 세일러 햇으로, 크라운은 골드 색상에 톱 크라운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으며, 브림은 블랙 색상에 크라운 쪽으로 올라간 형태를 이루고 있어 경쾌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4>는 2014/15년 F/W 시즌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에서 발표한 블랙 색상의 더비 햇으로, 형태는 반구형의 크라운 형태에 브림이 위로 말려 올라간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크라운과 브림 부분

의 진주 장식은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강조한다. <그림 45>는 2012/13 F/W 시즌 랄프 로렌에서 발표한 블랙 색상의 톱 햇으로, 남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출한다. 크라운의 형태는 원통형을 이루며, 브림은 폭이 좁고 실크 소재에 심지를 붙여 곧게 뻗는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6>은 2012/13 F/W 시즌 랄프 로렌에서 발표한 브라운 색상의 머시룸 햇으로, 크라운은 반구형에 브림은 아래쪽으로 쳐져 있다. 소재는 펠트로 되어 있으며 베이지 색상의 띠가 크라운 주변을 두르고 있어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47>은 2012 S/S 시즌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발표한 화이트 색상의 브레톤으로, 크라운은 낮은 원통형을 이루며, 브림은 위로 말려있는 형태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48>은 2012년 S/S 시즌 에르템(Erdem) 컬렉션에서 발표한 화이트 색상의 보터이다. 크라운은 낮고 편평한 원통형에 브림의 폭은 좁고 단단한 심지가 들어가 있어 수평을 이루고 있어 가볍고 경쾌한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9>는 2012년 S/S 시즌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에서 발표한 페도라로 중후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출한다. 크라운 중앙에 세로로 접혀 있는 사다리꼴 형을 이루며, 브림은 폭이 좁고 단단한 수평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브라운 색상의 띠를 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햇형의 모자는 클로슈·브리머·세일

러 햇·더비 햇·툽 햇·머시룸 햇·브레튼·보터·페도라 등이 있다. 주로 사다리꼴 형이나 반구형의 크라운에 원형이나 수평을 이루는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상은 피치·화이트·골드·브라운·카키 등이며, 소재는 실크·코튼·스트로우·울 등이 사용되었으며, 끈·스카프·진주·깃털 등이 장식되어있다. 이러한 모자는 페미닌·내추럴·캐주얼·클래식·매니시 이미지 등 다양한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4. 캡형

캡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구성되었으며, 모자 앞부분에만 브림이 있는 형태의 모자로, 총 219점이 나타났다. 종류로는 카스켓 151점, 베이스볼 캡 66점, 디어스토커 2점이다.

〈그림 50〉은 2012/13년 F/W 시즌 랄프 로렌에서 발표한 브라운 색상의 카스켓으로 전통적이면서도 보이쉬한 감각을 강하게 표출한다. 크라운은 부드러운 울 소재로 되어 있어 반구형을 이루며, 브림은 폭이 좁아 단정하다. 〈그림 51〉은 2014/15년 F/W 시즌 미쏘니에서 발표한 브라운 색상의 디어스토커로, 원통형의 크라운에 폭이 좁고 평평한 브림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오렌지 색상의 퍼 소재로 된 이어플랩으로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2〉는 2015/16년 F/W 시즌 모스키노에서 발표한 베이스볼 캡으로, 반구형의 크라운에 좁고 평평한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크라운에는 만화 캐릭터가 프린팅 되어 있고 브림은 비비드한 레드색상으로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캡형의 모자는 카스켓·디어스토커·베이스볼 캡 등이 있다. 주로 반구형이나 원통형의 크라운에 폭이 좁고 평평한 브림으로 되어 있으며, 색상은 화이트·블랙·카키·머스터드·레드 등이며, 소재는 퍼·레더·울 등의 소재 등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만화 캐릭터가 프린트 되어 있거나 와펜·체인 등이 장식 되어, 클래식·캐주얼·액티브 이미지 등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50〉 카스켓
(출처: 2012/13 F/W
Ralph Lauren
Collection, Vol 24, 318)



〈그림 51〉 디어스토커
(출처: 2014/15 F/W
Missoni Collection,
Vol 27, p.220)



〈그림 52〉 베이스볼 캡
(출처: 2015/16 F/W
Moschino Collection,
Vol 29, p.239)

5. 비정형

비정형(informel)이란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뜻으로, 조운수와 박선희(2016)에 의하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의 경우, 형태를 왜곡하여 과장하거나 불규칙적인 실루엣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자의 비정형은 브림과 크라운이라는 구성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거나, 그 경계가 불분명한 모자의 유형으로 정의 내린다.

이러한 비정형은 총 156점이 나타났는데, 브림과 크라운이 과도하게 변형된 모자 121점과 브림과 크라운의 경계가 모호한 모자 35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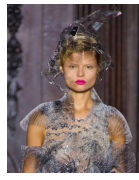
〈그림 53〉은 2012년 S/S 시즌 자일스 컬렉션에 발표된 화이트 색상의 모자로 크라운은 백조 모 형태로 되어 있으며, 브림은 백조의 날개 모양처럼 되어 있다. 마치 진짜 백조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으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54〉는 2015년 S/S 시즌 장 폴 고티에 컬렉션에서 발표한 블랙 색상의 모자로, 크라운 부분은 반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브림은 얼굴 쪽으로 내려와 있고 입술 모양의 오브제가 부착되어 있어 왜곡된 얼굴 형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묘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55〉는 2013년 S/S 시즌 자일스에서 발표한 모자로, 기하학적인 문양이 연결된 모양으로 브림과 크라운의 경계가 모호하며 투명한 신소재를 사용해 실험성이 강한 디자인이다. 〈그림 56〉은 2012/13년 F/W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컬렉션에서 발표된 모자로, 부피감이 있는 퍼 소재로 브림과 크라운을 확대하고,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한다. 〈그림 57〉은 2014/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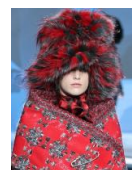
<그림 53> 비정형 모자(1)
(출처: 2012 S/S Giles Collection, Vol 23, p.358)



<그림 54> 비정형 모자 (2)
(출처: 2015 S/S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 Vol 28, p.85)



<그림 55> 비정형 모자 (3)
(출처: 2013 S/S Giles Collection, Vol 25, p.363)



<그림 56> 비정형 모자 (4)
(출처: 2012/13 F/W Marc Jacobs Collection, Vol 24, p.235)








<그림 57> 비정형 모자 (5)
(출처: 2014/15 F/W Yohji Yamamoto Collection, Vol 27, p.142)

<표 4>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유형별 모자의 조형성 분석

유형	종류	수	조형적 특성				대표 브랜드	대표사진
			형태	색상	소재	장식		
브림형	바이저 (visor)	81	· 사각형 · 원형	· Transparent · Yellow · Black	· 플라스틱 · 코튼 · 레터 · 메탈	· 리본	· Missoni · Moschino · Balenciaga · Alexander McQueen	
크라운형	필 박스 (pill box)	13	· 원통형	· Black · Green · Yellow · Orange · Silver	· 피 · 코튼	· 파이핑	· Lanvin · Jean paul Gaultier	
	토크 (toque)	172	· 종형 · 원통형 · 반구형 · 원형 · 사다리꼴형	· Black · White · Beige · Brown · Red	· 울 · 피 · 벨벳 · 스트로우 · 메탈	· 꽃장식 · 비즈 · 인형장식 · 니팅	· Chanel · Lanvin · Ralph Lauren · Alexander McQueen · Moschino · Dsquared2	
	시농 캡 (chignon cap)	32	· 원형	· White · Black · Navy	· 메쉬 · 레이스 · 코튼	· 비즈 · 리본 · 레이스 장식	· Anna Sui · Thom Browne · Nina Ricci	
	헬멧 (helmet)	3	· 반구형	· Mustard · Gray · White	· 메탈 · 울	· Y자형 턱끈	· Yohji Yamamoto	
	스컬 캡 (skull cap)	59	· 반구형 · 삼각형	· Grey · Black · White · Silver	· 메쉬 · 울	· 비즈 · 레이스	· Giorgio Armani · Gareth Pugh · Thom Browne	
	후드 (hood)	59	· 반구형	· Grey · Black · White · Black · Brown	· 피 · 울 · 쉬폰 · 메쉬	· 파이핑 · 비즈	· Alexander Wang · Dolce & Gabbana · Moncler Gamme Rouge · Fendi · Chanel	
	터번 (turban)	37	· 반구형	· Black · Green · Blue · White · Pink	· 실크 · 울 · 가죽 · 코튼	· 비즈 · 망사	· Anna Sui · Saint Lauren · Missoni · Thom Browne	
	베레 (beret)	32	· 반구형 · 사다리꼴형 · 원통형	· Pink · Black · Red	· 울 · 레오타드 · 가죽 · 펠트	· 파이핑	· Ralph Lauren · Rodarte · Gucci · Maison Margiela · Acne Studios	

크라उन형	비긴 (biggin)	69	· 반구형	· White · Silver · Black · Grey · Red	· 울 · 레이스	· 비즈 · 텍 콘	· Alexander McQueen · Rick Owens	
	니트 캡 (knit cap)	96	· 반구형 · 원형 · 원통형	· White · Beige · Black · Pink · Purple	· 울 · 레더	· 레이스 · 로고 문양	· Anna Sui · Jil Sander · Rokasanda Ilincic · Gucci · Giles	
햇형	클로슈 (cloche)	61	· 종형	· Pitch · White · Beige · Black · Grey	· 실크 · 코튼	· 깃털 · 리본	· Louis Vuitton · Christian Dior · Ralph Lauren · Dsquared2	
	브리머 (brimmer)	237	· 사다리꼴형 · 반구형 · 원형	· Black · Beige · Grey · Brown · Gold · Red · White · Orange	· 스트로우 · 코튼 · 울 · 매쉬 · 레이스	· 스카프 · 리본 · 깃털 · 레더 · 퍼	· Chalayan · Giorgio Armani · Anna sui · DKNY · Michael Kors · Giorgio Armani · Dsquared2 · Alexander McQueen · Marc Jacobs · Giles · Saint Laurent	
	세일러 햇 (sailor hat)	1	· 사다리꼴형 · 원형	· Gold · Black	· 코튼		· Vivienne Westwood Red Label	
	더비 햇 (derby hat)	8	· 반구형	· Grey · Black · Beige	· 스트로우 · 울	· 진주 · 리본	· Emporio Armani · Vivienne Westwood · Paul Smith	
	톱 햇 (top hat)	8	· 원통형	· Black	· 실크 · 매쉬	· 리본	· Ralph Lauren · Vivienne Westwood Red Label · Yohji Yamamoto	
	머시룸 햇 (mushroom hat)	11	· 반구형 · 종형	· Blown · Grey · Black	· 울 · 펠트	· 리본	· Ralph Lauren	
	브레톤 (breton)	42	· 사다리꼴형 · 원통형 · 반구형	· Black · Grey · White · Red · Brown	· 울 · 코튼	· 리본	· Moschino · Derek Lam · Jason Wu · Max Mara	
	보터 (boater)	48	· 원통형	· White · Black · Red · Purple · Grey	· 실크 · 코튼 · 레이스 · 울 · 매쉬	· 리본	· John Galliano · Kenzo · Ralph Lauren · Erdem · Chanel	
	페도라 (fedora)	117	· 사다리꼴형	· Black · Grey · Brown · Red · Brown	· 울 · 실크	· 리본	· Giorgio Armani · Donna Karan · Thakoon · Anna sui · Dsquared2	

캡형	카스켓 (casquette)	151	· 원통형 · 반구형 · 사다리꼴형	· White · Black · Khaki · Grey · Mustard · Purple	· 퍼 · 레터 · 실크	· 깃털 · 와펜 · 비즈 · 체인	· Donna Karan · Dsquared2 · Ralph Lauren · Dsquared2 · Burberry Prorsum · Marc by Marc Jacobs · Julien Macdonald · Blumarine	
	디어스토키 (deerstalker)	2	· 사다리꼴형	· Brown · Orange	· 울 · 퍼	· 트리밍	· Missoni	
	베이스볼 캡 (baseball cap)	66	· 반구형 · 원형	· Green · Black · Red · White · Pink · Orange · Yellow	· 매쉬 · 레터 · 울 · 스트로우	· 자수 · 비즈 · 로프 · 프린팅 · 방울 · 리본	· Kenzo · Lanvin · Moschino · Jean Paul Gaultier · Moncler Gamme Rouge · Emilio Pucci · Dsquared2	
비정형	브림과 크라운이 변형된 모자	121	· 모래시계형 · 원통형 · 원형 · 상자형 · 동물형	· Purple · Orange · Yellow · Red · Black · Sky Blue · Gold	· 메탈 · 깃털 · 매쉬 · 플라스틱 · 스트로우	· 리본 · 망사 · 꽃	· Louis Vuitton · Rick Owens · Vivienne Westwood · Maison Margiela · Emanuel Ungaro · Thom Browne · Jean Paul Gaultier · Comme Des Garcons · Yohji Yamamoto · Giles · Gareth Pugh	
	브림과 크라운의 경계가 모호한 모자	35	· 나팔형 · 마름모형 · 종형 · 반구형 · 원통형	· Black · Red · White · Grey · Brown · Pink	· 퍼 · 울 · 스트로우 · 린넨	· 방울 · 리본	· Ann Demeulemeester · Giorgio Armani · Dsquared2 · Preen By Thornton · Bregazzi · Lanvin · Marc Jacobs	

F/W 시즌 요지 야마모토 컬렉션에서 발표된 블랙 색상의 모자로, 이것은 지나치게 낮고 넓은 원통형의 브림이 크라운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칭의 틀을 과감하게 깬 디자인으로 냉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정형의 모자는 브림과 크라운이 과도하게 변형되거나 브림과 크라운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로 나타났다. 원통형·상자형·모래시계형·동물형·나팔형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색상은 주로 퍼플·오렌지·핑크·옐로우·레드·스카이 블루·그레이 등이며, 소재는 메탈·깃털·매쉬·플라스틱·스트로우·린넨 등이 사용되었고, 여기에 리본·망사·방울·꽃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는 형태·색상·소재·장식 등에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아방가르드·그로테스크 이미지 등을 연출한다.

이상 2012년 S/S부터 2015/16년 F/W까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유형별 모자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2012년 S/S 시즌부터 2015/16 F/W 시즌까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는 머리를 덮는 쓰개에 대한 총칭으로, 20세기 이전에는 권력이나 지위·소속·계급·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이후에는 기능적인 목적 외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모자는 머리를 덮는 부분인 크라운과 크라운 둘레를 따라 둘러진 면인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자의 구성과 외관형태, 브림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브림형, 크라운형, 햇형, 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브림형은 브림으로만 구성된 모자로, 바이저가 대표적이다. 크라운형은 크라운으로만 구성된 모자로, 필 박스·토크·시농 캡·페즈·헬멧·스컬 캡·후드·터번·보닛·베레·비긴·니트 캡 등이 있

다. 햇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림이 모자 전체를 두르는 형태의 모자로, 클로슈·브리머·세일러 햇·더비 햇·톱 햇·머시룸 햇·브레튼·보터·페도라 등이 있다. 캡형은 크라운과 브림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자 앞부분에만 브림이 있는 형태의 모자로, 카스켓·디어스토커·라이딩 캡·베이스볼 캡 등이 있다.

둘째,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 1,561점을 분석한 결과, 브림형은 총 81점의 바이저로, 바이저는 크라운이 없어 머리를 드러내는 형태에 브림은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되어 있다. 색상은 투명·옐로우·블랙 등이며, 소재는 플라스틱·코튼·레더·메탈 등이 사용되어 모던·액티브·아방가르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크라운형은 총 572점으로, 토크 172점, 니트 캡 96점, 비긴 69점, 스컬 캡 59점, 후드 59점, 터번 37점, 시논 캡 32점, 베레 32점, 필 박스 13점, 헬멧 3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원통형·중형·반구형·원형을 이루며, 색상은 블랙·베이지·브라운·레드·머스터드·그레이 등이며, 소재는 울·퍼·벨벳·스트로우·메탈 등이 사용되었으며, 비즈 장식·끈 등이 장식되어 모던·엘레강스·페미닌·액티브·에스닉·캐주얼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햇형은 총 533점으로, 브리머 237점, 페도라 117점, 클로슈 61점, 브레튼 42점, 보터 48점, 머시룸 햇 11점, 더비 햇 8점, 톱 햇 8점, 세일러 햇 1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다리꼴 형이나 반구형의 크라운에 원형이나 수평을 이루는 브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상은 피치·화이트·골드·브라운·카키 등이며, 소재는 실크·코튼·스트로우·울 등이 사용되었으며, 리본·스카프·진주·깃털 등이 장식되어 페미닌·내추럴·캐주얼·클래식·매니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캡형은 총 219점으로, 카스켓 151점, 베이스볼 캡 66점, 디어스토커 2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반구형이나 원통형의 크라운에 폭이 좁고 평평한 브림으로 되어 있으며, 색상은 화이트·블랙·카키·머스터드·레드 등이며, 소재는 퍼·레더·울 등의 소재 등이 사용되었으며, 만화 캐릭터가 프린트 되어 있거나 와펜·체인 등이 장식되어 클래식·캐주얼·액티브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비정형의 모자는 156점으로, 브림과 크라운이 과도하게 변형된 모자 121점과 브림과 크라운의 경계가 모

호한 모자 35점이 나타났다. 원통형·상자형·모래시계형·동물형·나팔형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색상은 주로 퍼플·오렌지·핑크·옐로우·레드·스카이 블루·그레이 등이며, 소재는 메탈·깃털·매쉬·플라스틱·스트로우·린넨 등이 사용되었고, 여기에 리본·망사·방울·꽃 등이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모자는 형태·색상·소재·장식 등에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아방가르드·그로테스크 이미지 등을 연출한다.

이처럼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모자는 구성과 외관형태, 브림의 유무 등에 따른 브림형, 크라운형, 햇형, 캡형 외에도 실험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비정형 모자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패션 디자이너들은 크라운형의 토크와 니트 캡, 햇형의 브리머와 페도라, 캡형의 카스켓, 비정형의 브림과 크라운이 변형된 모자를 창의적인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 스타일별로 구분하여 모자의 조형적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인숙. (2001). 1990년대 헤어스타일과 헤드드레스의 키치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5(2), 73-86.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서울: 교문사.
- 김은실. (2009). 필립 트레이시 작품연구 2. *복식*, 59(10), 151-171.
- 김은실. (2010). 현대 패션(1990-2008)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의복과 모자와의 조형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4), 144-155.
- 김은실, 배수정. (2003). 필립 트레이시 작품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3), 107-119.
- 김은실, 배수정, 손영미. (2006). *패션코디네이션을 위한 모자 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 김위수. (2015. 12. 10). 겨울 패션, '모자'에 주목하자. *머니투데이*.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stylem.mt.co.kr>
- 김익길. (2012. 06. 27). 더위 기승... 양산-모자 불

- 티. *S/b News*.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www.sjbnews.com
- 김지영. (2016. 08. 19). 얼굴이 예뻐보이는 야구 모자. *Vogue*.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www.vogue.co.kr
- 니트 캡.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더비 햇.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동아 TV. (2011). *2012 S/S Collection*, Vol 23. 서울: 동아TV.
- 동아 TV. (2012). *2012/13 F/W Collection*, Vol 24. 서울: 동아TV.
- 동아 TV. (2012). *2013 S/S Collection*, Vol 25. 서울: 동아TV.
- 동아 TV. (2013). *2013/14 F/W Collection*, Vol 26. 서울: 동아TV.
- 동아 TV. (2013). *2014 S/S n Collection*, Vol 1. 서울: 정은도서.
- 동아 TV. (2014). *2014/15 F/W Collection*, Vol 27. 서울: 헤럴드동아.
- 동아 TV. (2014). *2015 S/S Collection*, Vol 28. 서울: 헤럴드동아.
- 동아 TV. (2015). *2015/16 F/W Collection*, Vol 29. 서울: 헤럴드동아.
- 디어스토커.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라이딩 캡.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www.doopedia.co.kr
- 라이딩 캡.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박월미, 김은실, 배수정. (2013). 스테판 존스 모자 디자인의 미적 특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4), 326-340.
- 보터.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베레.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비건.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서동애. (2012). 남성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 스타일 특성 분석. *복식문화연구*, 20(6), 826-837.
- 선 실드.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손은영. (2014. 10. 06).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자. *Vogue*.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www.vogue.co.kr
- 세일러 햇.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양지나, 이상은. (2007). 한국과 프랑스의 남성 모자 비교 연구: 17~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115-125.
- 유연수. (2014. 12. 19). 한파 속 스타일 지킴이 '모자'. *스타일M*.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http://stylem.mt.co.kr>
- 유현정, 김민자. (2006). 20세기 이후 여성 모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9), 50-65.
- 정수진, 정해선, 강경자. (2005). 모자 유형과 헤어 스타일 및 길이변화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3), 129-144.
-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460-471.
- 정해진, 정수진. (2008).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패션 이미지의 디자인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1), 55-68.
-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 조윤수, 박선희. (2016).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비정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6(2), 113-135.
- 최진영, 김진영. (2016). 오프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 디자인: 2010 S/S - 2015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20(2), 59-77.
- 토크.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톱 햇.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후드. *패션전문자료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헬멧. *비주얼사전*. 자료검색일 2016. 10. 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fashio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 Cox, B., Jones, C. S., Stafford D., & Stafford C.

- (2013). *Fashionable: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bizarre and beautiful* (이상미 역). 서울: 미술문화.
- Stall-Meadows, C. (2008). *패션 액세서리* (김용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Lau, J. (2014). *Designing Accessories* (박은경 외 역). 서울: 교문사.
- Mulvey, K. (1998). *Decades of beauty*. New York: Checkmark Books.
- Reilly, M., & Detrich, M. (1997). *Women's hats of the 20th century*. Atglen: Shiffer Publishing.
- Hopkins, S. (1999). *The century of hats*. London: Aurum.
- 7 Ways to Wear the Fedora Hat. (2015. 08. 06). *Fashion Gone Rogue*. 자료검색일 2016. 11. 01, 자료출처 www.fashiongonerogue.com